

독서클럽 모임 보고서 - 엄청난미모

1주차	일시	11월 4일 화요일 16:00 - 17:00 (연구관 9층 라운지)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박주혁 (2595022)	O
		서명주 (2595033)	O
		유정수 (2595025)	O
		김민정 (2595037)	O
	진도	도서명: 거꾸로 읽는 세계사	진도페이지: 17p. ~ 104p.
	토론 내용	<div data-bbox="587 728 1410 1115" data-label="Image"> </div> <p>[좌측부터 박주혁, 유정수, 김민정, 서명주, 이경복 교수님]</p> <p>박주혁: 하나의 커다란 집단에서 한 명의 개인에게 죄를 덮어씌우고 몰아가는 이야기를 직접 보듯이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들었다.. 인류 문명에서는 어느 시대든, 어느 지역이든 수도 없이 일어났을 일이지만.. 피카르 중령은 끝까지 거짓과 타협하지 않고 진실을 끝까지 고수하여 결국 자신의 결백을 지켜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항상 지켜줄 수 있는 진실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다시금 느꼈다.</p> <p>서명주: 피카르 중령의 모습이 공익 제보자나 내부 고발자와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회사나 공공기관의 비리를 용기 있게 밝혔는데 오히려 조직의 비밀을 누설했다며 불이익을 당하거나 해고되는 뉴스를 종종 본다. 진실과 조직의 이익이 충돌할 때,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개인이 진실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지 생각해보게 되었다.</p> <p>유정수: <거꾸로 읽는 세계사> 를 통해 법이 정치적 권력, 이념, 대중의 광기에 의해 왜곡된 '법대로 처벌하지 않은' 역사적 사건들을 보았다. 이러한 현상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에도 사회적 지위나 배경에 따라 법 집행이 불평등하게 나타나는 현실과 놀랍도록 닮아있다는 생각을 했다.</p> <p>김민정: 단순히 역사를 배운 것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가 예나 지금이나 다를 것이 없다는 생각을 했다. 유토피아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 재밌었다. 나는 유토피아를 원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고 그곳에선 누구도 일하고 싶어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교수님께서 당신은 항상 유토피아에 살고 싶었다고 말씀하셔서 놀랐다.</p>	

2주차	일시	11월 14일 금요일 16:00 - 16:50 (상상빌리지 세미나실)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박주혁 (2595022)	O
		서명주 (2595033)	O
		유정수 (2595025)	O
		김민정 (2595037)	O
	진도	도서명: 거꾸로 읽는 세계사	진도페이지: 105p. ~ 204p.
	토론 내용	<div data-bbox="526 616 1457 1189" data-label="Image"> </div> <p>[좌측부터 서명주, 박주혁, 김민정, 유정수]</p> <p>박주혁: 문화대혁명, 천안문 사건과 같은 중국의 역사적 사건들을 보면서 왜 마오쩌둥, 장제스와 같은 지도자들이 어떻게 저렇게 신격화되어있고 절대불가침의 권력을 가지게 되었을지 의문이 들었다. 이 책에서 소개해준 중국 지도자들의 생애와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의 과정들을 보며 이해할 수 있었다. 그 누구보다 민중을 위하고 민족의 자유와 부흥, 안정을 바라는 최고의 지도자였던 것이다.</p> <p>서명주: 368일 동안 매일 130km를 이동하고 산맥 18개와 강 24개를 건넜으며, 시작한 사람의 90%가 죽거나 낙오해 겨우 10%만 살아남은 처절한 생존 게임이었다는 점이 충격적이었다. 단순히 땅을 이동한 게 아니라, 극한의 상황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정신력이 오늘날 중국을 만든 뿌리가 되었다는 점이 인상 깊다.</p> <p>유정수: 러시아혁명 부분을 중심으로 혁명이 발생하게 된 사회·경제적 배경과 당시 민중이 느꼈던 불만에 대해 토론했다. 또한 혁명이 가져온 변화가 단순히 권력 교체를 넘어 사회 구조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야기했다. 특히 혁명의 이상과 실제 결과 사이의 차이를 비교하며, 역사적 사건을 바라볼 때 여러 관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견을 나누었다.</p> <p>김민정: 제 2장인 '사라예보 사건: 광야를 태운 불씨'에 대해 이야기했다. 1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면 굉장히 거창해보이고, 엄청난 내막이 있을 것 같았는데, 한 청년의 황태자 암살 사건이 불씨였다는 점이 흥미로웠다. "그런 일을 겪고도 인류는 무력행사를 절제하는 능력을 기르지 못하고 겨우 20여 년 뒤에 더 끔찍한 전쟁을 또 벌였다. '위대한 조국'을 들먹이며 민중을 현혹해 싸움터로 내모는 권력자와 정치인은 지금도 있다.(p.67)" 라는 대목에서 1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사회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p>	

3주차	일시	11월 27일 목요일 15:00 - 16:00 (상상파크)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박주혁 (2595022)	O
		서명주 (2595033)	O
		유정수 (2595025)	X
		김민정 (2595037)	O
	진도	도서명: 거꾸로 읽는 세계사	진도페이지: 205p. ~ 304p.
	토론 내용	<div data-bbox="526 616 1457 1211" data-label="Image"> </div> <p>[좌측부터 박주혁, 서명주, 김민정]</p> <p>박주혁: 대공황 이전, 사회학자, 경제학자들은 사람들이 각자의 상황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경제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수렴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बैंक런과 사재기 현상에서 볼 수 있듯이 개인은 각자에게 최선인 선택을 하나, 사회는 큰 타격을 받는 것이다. 이런 합리적이면서도 불합리적인 이 선택들을 비롯한 오차들을 경제학자들은 고려하지 않았고, 이 오차의 누적은 대공황이라는 어마무시한 현상을 만들어냈다.</p> <p>서명주: 유대 군대는 탱크와 장갑차로 무장한 5만 명이었지만 팔레스타인은 소총뿐인 비정규군 7천 명에 불과했다. 책을 읽기 전에는 그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이건 전쟁이 아니라 일방적인 학살이자 추방에 가까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왜 책의 소재목이 '인종 청소'인지 확실히 이해할 수 있었다.</p> <p>김민정: '오펜하이머'라는 영화를 인상깊게 본 기억이 있어서, 제 10장인 '핵무기: 에너지의 역습'은 다른 챕터들보다 잘 읽혔다. 특히, 영화에서는 깊게 다루지 않았던 반핵운동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다. 핵무기 개발이 가장 중대한 '기술적 사건'이라는 것과 그 위험성에 관한 이야기는 잘 알았지만, 반핵운동에 대해 생각해볼게된 건 처음이었다. 평화운동의 주체가 전통적인 사회운동과는 달리 여성이었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깊었다.</p>	

4주차	일시	12월 5일 금요일 16:00 - 17:00 (연구관 9층 라운지)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박주혁 (2595022)	O
		서명주 (2595033)	X
		유정수 (2595025)	O
		김민정 (2595037)	O
	진도	도서명: 거꾸로 읽는 세계사	진도페이지: 305p. ~ 387p.
	토론 내용	<div data-bbox="526 616 1457 1294" data-label="Image"> </div> <p>[좌측부터 김민정, 박주혁, 이경복 교수님, 유정수]</p> <p>박주혁: "인간이 다른 인간을 죽이는 방법을 찾기 시작한 순간 과학은 전쟁과 손을 잡았고, 둘의 협력이 최고 수준에 다다랐을 때 핵폭탄이 태어났다." 우리는 보통 과학의 발전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과학이 과연 항상 옳거나 좋은 것인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이 떠오르는 구절이었다.</p> <p>유정수: 대공황 파트를 읽고 "사람들은 저마다 '합리적'으로 행동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모두가 불행해졌다."라는 문장이 특히 인상 깊었다고 이야기했다.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전체적으로는 비합리적이고 파괴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다. 토론에서는 당시 경제 상황과 오늘날의 금융 위기 사례를 연결해 보며, 집단적 행동의 중요성과 역사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p> <p>김민정: "사람들은 저마다 '합리적'으로 행동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모두가 불행해졌다.(p.113)" 라는 문장에 대해 토론했다. 사람들은 당연히 자신에게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방향으로 행동한다. 그러나 그것이 공동체의 최선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 모두가 불행해지는 이유이다. 토론을 하다보니 이 문장과는 대비되는 이야기인 금모으기 운동이 생각났다. 위기 극복을 위해 개인의 합리성대신 공동체의 최선을 택한 사람들이 생각났다. 그리고 어떤 '합리성'을 기준으로 행동해야 하는지 생각해보게 됐다.</p>	

활동 후기	No.	클럽원 정보	후기 내용
	1	박주혁 (2595022)	20세기의 가장 큰 흐름을 보여주는 장면들을 통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를 비유하듯 보여주는 것 같았다. 지난 역사가 단순히 지나간 일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임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스스로에게 부끄러워지기도 했다. 문화대혁명, 대공황, 나치즘 같은 굵직한 사건들의 이름만 알았지, 그 구체적인 내막은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얇은 지식을 반성하며, 앞으로 내 상식과 세상을 보는 안목을 더 탄탄하게 키워나야겠다고 생각했다.
	2	서명주 (2595033)	이번 독서 토론은 역사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부끄러움으로 시작했다. 하지만 교수님의 지도 덕분에 토론의 질이 한층 깊어졌고 마침 때쯤에는 '역사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말을 깊이 체감할 수 있었다. 이번 활동은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한층 더 성장시켜 준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3	유정수 (2595025)	총 네 번의 독서토론을 진행하면서 책의 내용을 단순히 이해하는 것을 넘어 여러 역사적 사건을 서로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매 차시마다 주제가 달라 다양한 관점이 오갔고, 친구들의 해석을 들으며 생각의 폭이 넓어졌다. 특히 서로의 의견을 비교하고 질문하는 과정이 큰 도움이 되었고, 역사적 지식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의 중요성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
	4	김민정 (2595037)	고등학교 시절 세계사를 배우지 않아서 배경지식이 전혀 없었고 흥미도 없었다. 나 혼자서라면 절대로 읽지 않았을 것 같은 책을 이 활동을 통해 읽게되었는데, 생각보다 재밌었다. 책에 서문에서 저자는 "역사를 안다고 해서 무슨 쓸모가 있을까마는, 나는 그저 아는 것 자체가 좋아서 다른 나라 역사를 공부했다. 나와 같은 사람이 더 있으리라 믿고 책을 낸다.(p.6)" 이렇게 말했다. 실제로 살아가는 데에 쓸모있는 이야기들은 아니겠지만, 몰랐던 이야기를 알아가는 것이 재미있었고, 역사와 현재를 비교해보면서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5		